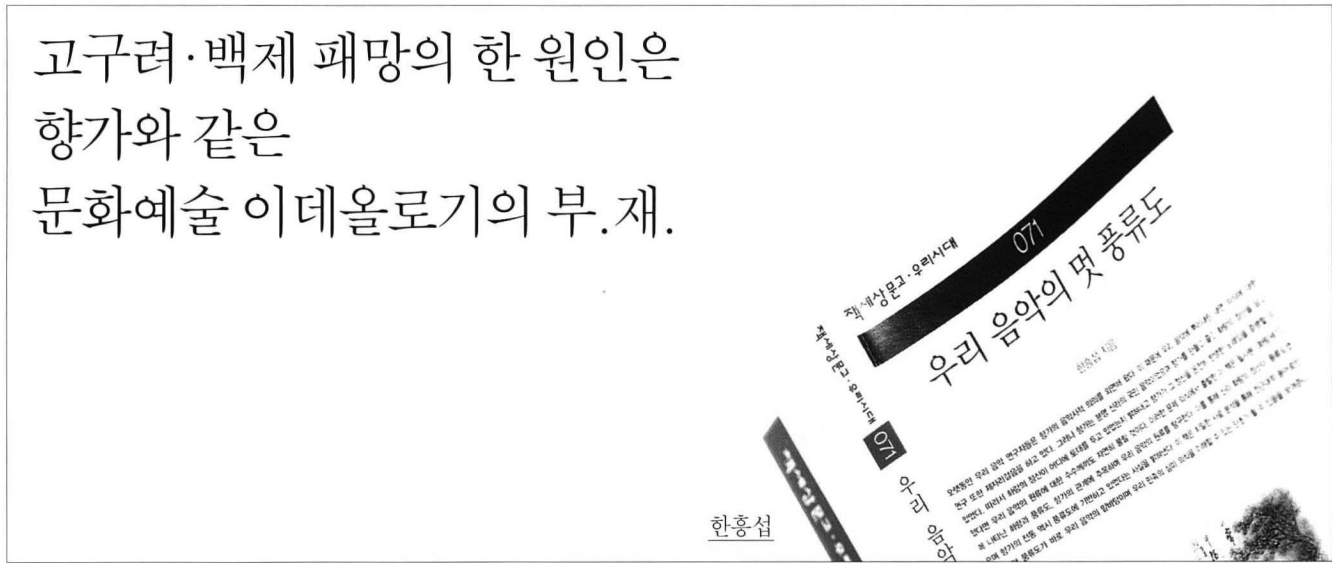


고구려·백제 패망의 한 원인은 향가와 같은 문화예술 이데올로기의 부.재.



풍류를 즐길 줄 안다는 건 잘 논다는 것과 다르다. 그 안에 멋과 철학이 깃들여 있다. 그렇다면 풍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풍류를 알기 위해 이 책에서는 화랑과 향가의 관계에 주목했다. 화랑에게 풍류란 서로 도의를 닦고 혹은 서로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는 화랑이 풍류도를 수행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음악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음악이 바로 향가이며 화랑이 음악을 통해 풍류도의 경지를 체득하고 또한 풍류도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음악과 풍류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풍류도의 본질은 음악(문화예술적 힘)을 통해 인간 세상을 교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이 책의 의의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향가鄉歌'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계에서 진위논쟁의 와중에 있는 '필사본《화랑세기》'를 진본으로 전제하고 화랑과 향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 풍류도가 우리 음악의 원류임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향가의 의의에 관해서만 말해 보겠다.

향가는 일반적으로 학교(초·중·고·대) 교과과정에서 국어(국문학) 시간에 소개된다. 향가를 음악시간에 다루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대학교 국악과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사만 남아있을 뿐 노래나 악보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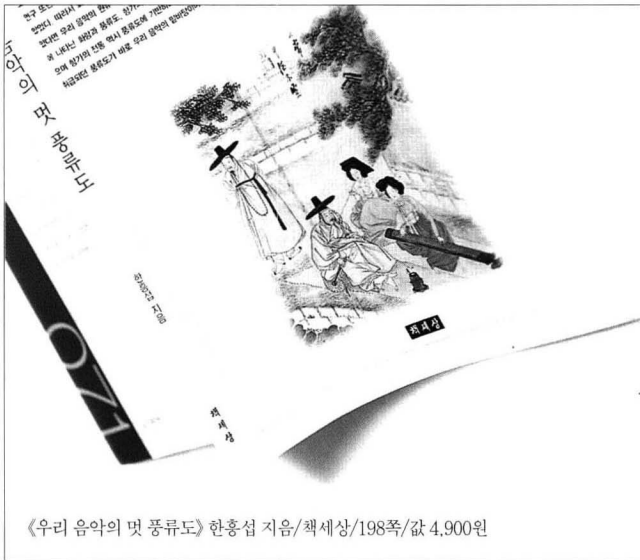
그러나 향가는 우리 고유의 '노래'이며, 신라 향가는 천년 왕국 신라인들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반영한 대중가요였다. 다시 말해 향가는 눈으로 읽고 낭송하는 현대적 의미의 시詩가 아니라, 노래로 불려진 시가詩歌였던 것이다. 지금 전해지는 신라

향가는 14수에 불과하지만, 관련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각계각층을 망라한 수많은 신라인이 부른 향가가 존재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향가가 어찌 신라에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700여 년의 세월을 지속해 온 고구려나 백제도 분명 우리말로 된 노래, 즉 향가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거의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추정은 고구려나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통합되면서 기존의 음악이 사라졌고, 통일 후에는 철저히 신라의 음악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동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신라 향가가 고구려나 백제의 향가와 구별되는 차이점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래 신라 향가는 통일 전부터 신라인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강력한 매체로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을 주도해 간 계층이 바로 당시의 지배계층인 화랑집단이었다. 말하자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통일 후 변영의 원동력이 화랑제도 이외에, 모든 신라인들을 정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향가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단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규범적인 인간 행위의 도덕 원칙(당시의 '세속오계'와 같은)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정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술(문화적 마인드)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최치원崔致遠이 말한 풍류도風流道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현묘玄妙한 도道로서의 풍류는 뜻·생명의 교화를 춤과 음악(향가)을 통해 표현·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춤과 음악(향가)을 통해 현묘한 도로서의 풍류를 체득



《우리 음악의 멋 풍류도》 한홍섭 지음/책세상/198쪽/값 4,900원

이 글을 쓴 한홍섭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 홍익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홍익대학교 인문대학 교양과정부에서는 '동서 사상의 비교'와 '동양 철학의 이해'를,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대학원에서는 '음악 미학 특강'을 강의하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중국 도가의 음악 사상》, 《장자의 예술 정신》,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 《한국의 음악 사상》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장자의 예술정신》, 《해강의 '성무애락론'에서의 '성'의 의미》, 《해강의 '성무애락론' 연구》, 《노장의 음악 미학 사상》, 《삼국의 악기수용에 관한 음악사상적 고찰》, 《조선 초의 음악 사상과 그 양상》 등이 있다.

하기도 하는데, 그 주체가 바로 화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향가에는 화랑 특유의 풍류정신이 담겨 있었다.

삼국시대에 접어들어 각국이 국가로서의 체제를 형성·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념의 체계화와 소통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향가였다. 왜냐하면 당시 향가는 상류계층과 하층민을 소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향가가 갖는 이러한 힘과 소통의 역할을 지도자층이 충분히 발휘해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온 국민의 열망과 정서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신라의 풍류도와 같은 강력한 문화예술적 이데올로기가 확보되지 못했으며, 이것이 결국 신라에 의한 패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주변국과의 정치·외교·군사적인 역학 관계로만 설명해 왔는데, 이는 신라 향가가 지닌 문화적 역동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이것이 이 책에서 밝힌 향가 이해에 대한 첫 번째 의의이다.

또한 그 향가도 단지 입으로만 불린 것이 아니라, 짓대(대금의 순 우리말)인 금琴과 거문고나 가야금과 같은 금琴의 반주로 연주된 세련된 음악이었다. 그런데 이 금琴과 거문고나 가야금은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적篳, 금琴(거문고의 경우), 箏(가야금의 경우)을 주체적이며 독자적으로 개량한 악기이다. 이 가운데 거문고와 가야금이 고구려와 가야의 악기라면, 금琴은 신라인들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라의 악기다. 금琴이라는 악기의 명칭은 중국에는 없다. 중국에서 고구려를 거쳐 들어온 적篳을 신라인들은 독자적으로 개량하여 이름도 금琴이라 명명하고, 또한 그것을 크기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대금大琴,

중금中琴, 소금小琴으로 만들만큼 짓대 음악을 애호하였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기록에 나와 있다. 고려 후기 김부식이 《삼국사기》 악지樂志를 기록할 당시,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도 거문고 187곡, 가야금 185곡, 향비파 212곡, 그리고 대금 324곡, 중금 245곡, 소금 298곡 등이 남아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삼죽三竹(대금·중금·소금을 말함) 곡(867곡)이 삼현三絃(거문고·가야금·향비파를 말함) 곡(484곡)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이 곡들이 바로 화랑들이 즐긴 향가음악이었음을 암시한다. 화랑들은 누구보다 짓대에 능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가는 삼현삼죽三絃三竹이라는 우리 민족에 의해 주체적으로 개량된 악기의 반주로 불렸으며, 풍류도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화랑이 중심이 된 신라인에 의한 신라인을 위한 신라인의 대중음악이었으므로, 향가는 신라 음악문화의 정화精華이자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음악사에서 향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그러한 학문적 무지 혹은 편견이나 독선에 대해 이를 명백히 비판하였다. 이것이 이 책에서 밝힌 향가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의의이다. **한홍섭**

차살림에서 변질된 다도문화가 지닌 중대한 오.류.와 심각한 병.폐. 지적

정동주



《한국 차살림》은 ‘한국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의 역사, 인물, 자연, 풍속 등을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모색해 보는 이름 출판사의 기획에 따른 나의 세 번째 작업결과다. 이미 간행된 《어머니의 전설》은 나의 어머니와 아내의 친정어머니 두 분께서 어릴 적부터 불러오신 노래 70여 곡을 중심으로 하여 쓴 서민여성사다. 두 분 모두 철저한 문맹이었지만 놀라운 기억력으로 지켜오신 100여 년 간의 가난, 여자의 슬픔, 세상살이의 고통과 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자 피문은 고백이다. 두 번째 책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은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 위에 무자비한 괴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회색의 콘크리트 도시문명에 대한 의심이자 생명사상의 복원을 꿈꾸고 있다. 계속될 이 기획은 주로 생명과 자연을 향하여 평등하게 열려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데 집중될 것이다.

《한국 차살림》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 가고 있는 차살림이 지닌 중대한 오류와 심각한 병폐를 고쳐보려는 뜻으로 썼다.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차살림이 시작된 것은 1세기 초 가야시대부터였다. 그 후 신라, 고구려, 백제를 거치면서 ‘차례茶禮’라는 매우 독특한 민족문화로 자리잡았다. 차살림 문화를 주도한 불교와 수행 승려들, 절집의 차살림을 본받고 따르려는 세속 사람들의 집요한 애정과 노력이 한데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정신세계에 빛과 향기를 응축시켜 준 것이 차살림이었다. 고려시대는 차살림이 곧 고려문화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광범위하게 생활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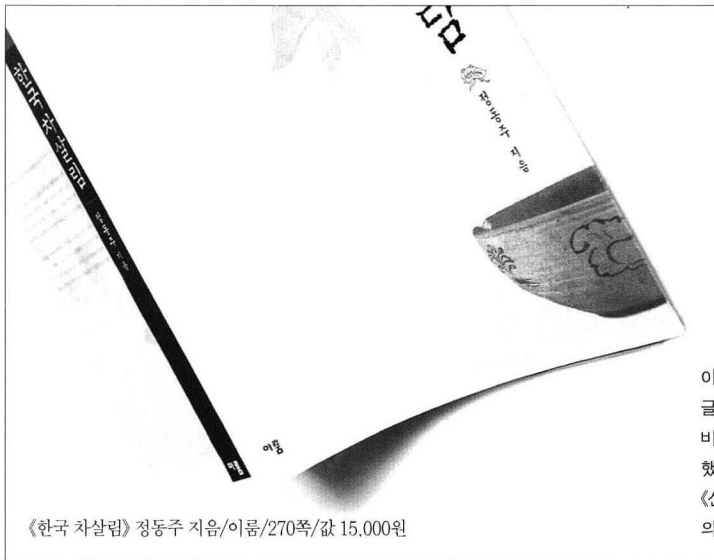
그러다가 14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등장과 함께 천 년을 훨씬 넘게 생활해 온 차살림 문화가 급격하게 위축되다가 소멸 위기

를 맞았다. 성리학 이념을 내세운 조선왕조는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주된 통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차살림은 곧 불교철학의 실현이라는 결론으로 내려진 조치였다. 성리학을 따르는 이들 중에서 차살림을 지켜내린 것은 이른바 영남사람학과파로 불리는 지극히 적은 몇 사람에게 의해서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극심한 탄압 정책으로 깊은 산속의 토굴에서 수행에만 전념한 참선 수행자들에 의해서 차살림의 본질이 이어졌다. 차 대신 술이 등장했다.

절멸위기에 처한 차살림을 복원시킨 것은 19세기 초 해남 대흥사의 초의草衣선사였다. 초의선사는 단순히 차살림만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중화사대주의 폐습과 골레 안에서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당시의 성리학적 지식인과 지배계층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했다. 동다송이란 우리나라 차와 차살림의 맛과 멋이 결코 중국의 그것에 뒤지지 않음을 노래한 것이다. 비록 온유하기가 매우 주지적이며 중국 다예茶藝 문화의 모순을 겉으로 드러내어 지적하지 않으려고 한 조심성이 있기는 했지만, 조선시대를 통하여 사대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만한 저술과 실천을 해보인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동다송은 단순한 책 이상의 뜻을 지닌 것이다.

초의선사의 차살림에 대한 이 같은 뜨거운 열정도 일제 강점기의 민족말살정책으로 다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주로 호남 지역의 귀중한 사찰들에서 그 비법이 전해져 내려오던 차만드는 법과 차살림 예절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일환으로 강요한 대처승 제도시행으로 혼란되고 흐려지다가 사라져버렸다.

해방과 미군정 통치, 6·25 전쟁, 자유당 독재를 거치면서 그 유구했던 차살림 문화는 아주 죽어버린 듯했다. 일제 때 일본



《한국 차살림》 정동주 지음/이름/270쪽/값 15,000원

이 글을 쓴 정동주는 경남 진양에서 출생하여 시집 《농투산이의 노래》를 발표하면서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다. 장시 《순례자》로 제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고 서사시 《논개》를 비롯하여 《생존일기》, 《이삭줍기》, 《그대 생각》 등의 시집을 낸 뒤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대하소설 《백정》, 《단야》, 《민적》을 포함하여 22권을 냈다. 장편 《파이강의 다리》, 《신의 지팡이》와 역사자료집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평전 《논개》, 오페라 《조선의 사랑, 논개》 등을 썼다.

유학 중 배운 일본의 다도茶道와 일본식 제다법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 차살림을 복원해 보려는 시도가 몇몇 승려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것도 1950년대에 들어선 뒤였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본래의 차문화를 뜻했던 '차살림'이란 말 대신 일본의 정신이자 전통문화의 핵심을 형성해 온 다도茶道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도와 일본 차문화는 우리 차살림과 차문화 위에서 마치 한국의 전통처럼 묘한 권위를 누려오고 있다. 큰 부끄러움이며 수치다.

차는 본래 불교 수행자의 수행방법이자 수행 그 자체이던 것을 세속인이 흠모하여 배운 것이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불교의 근본 철학은 곧 생명체의 유기적 존재를 뜻한다. 차살림은 생명체의 상관성, 즉 공존과 상생을 가장 숭고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를 실천하려는 수행이다. 공존과 상생은 평등을 실천 수단으로 삼는다. '차 한잔'의 의미가 그것이다. 부귀비천 차별 없이 온전한 인격체로 예우하는 차 한잔의 평등,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그것의 존재 없이는 내가 성립할 수 없는 차 한잔의 생명, 누군가(무엇인가)의 끊임없는 노동의 결과로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차 한잔의 은혜, 좋은 것을 남에게 먼저 권하는 차 한잔의 사비(사랑)는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다. 이와 같은 차의 미학세계가 차가 지닌 음식으로서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깊고 향기롭게 가꾸어 온 것이 '차살림'이다.

15세기 조선 불교는 극도의 탄압 아래서 목숨을 내놓은 구도의 열정으로 고요하게 불타올랐다. 이 모습이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조선에 온 일본 승려들에게 경이로운 이상세계처럼 비쳐졌다. 15세기 일본은 중국에서 배워온 서원茶書院茶의 화려함과 응

장함이 사치와 방종으로 변질되어 일본 자체의 치명적 병폐로 드러나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용한 것이 탄압받는 조선 절집 가난한 승려의 극도로 절제된 생활과 가난한 서민들의 두 칸짜리 초가집 구조였다. 조선 승려의 발우공양법과 조선 서민의 작은 초가집 형태를 교묘하게 결합시켜 응용해 낸 것이 일본의 초암차草庵茶이며 다도茶道의 원류다. 이른바 농차濃茶라는 초암차 특유의 차법은 조선 승려의 발우공양법과 서민들의 자연스런 소박미와 꾸밈없는 삶을 근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차인들은 일본의 다도문화에 너무 쉽게 빠져들고 있다. 흉내내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 그것은 자칫 차살림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맹목적 순종과 과시 목적의 흉내내기가 될 위험이 있다.

차살림은 내가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고 묻는 수행이다. 단순함과 간결함으로 이승살이를 고마워하는 종교다. ■

